

# 부산항, 국제 해상관광 중심지 도약위해 새단장

## 부산 국제크루즈터미널 오는 12월 완공돼 개장

동북아 물류 거점 항만인 부산항이 이번에는 국제 해상관광 중심지로 거듭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8월3일 오후 부산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에서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허남식 부산시장, 추준석 BPA 사장 등 주요 인사와 영도구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 기공식을 가졌다.

크루즈터미널은 매립지 내 9,568평 부지에 사업비 53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670평,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순께 완공돼 개장된다.

이로써 그동안 부산항에 크루즈 전용시설이 없어 외국 크루즈선들이 화물을 처리하는 북항 1, 2부두를 이용해야만 했던 불편이 사라져 크루즈선 유치에 활기를 띠 전망이다.

터미널 1층에는 출입국 대합실과 여객 편의시설이, 2층에는 다목적홀과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선사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터미널 전면에는 길이 200m, 너비 50m의 친수공간이 조성되고 뒤편에는 버스 등 대형차량 55대와 승용차 22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설치된다.

터미널은 또 10만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수심 11.5m, 길이 360m, 너비 50m의 크루즈 전용부두와 길이 150m의 파파제(파도를 막기 위한 소형 제방) 등의 부두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지난 2003년 말 착공된 이 시설은 8월말께 완공될 예정이다.

BPA는 내년부터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선과 부산항 연안 크루즈선인 팬스타드림호를 크루즈터

미널에 접안시키는 한편,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북항 재래부두 재개발사업을 통해 현 중앙부두 지역에 국제허브여객터미널이 건립될 때까지 크루즈터미널을 사용할 계획이다.

내년에 크루즈터미널에 입항 예정인 크루즈선은 38척이며, 팬스타드림호는 연간 52회 이 터미널을 이용하게 된다. BPA는 효율적·체계적인 크루즈터미널 운영을 위해 민간 운영회사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국제허브여객터미널 개장 이후에는 터미널을 다목적부두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기공식에서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21세기 유망산업인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정비와 크루즈업계 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부산에는 크루즈선 22척(관광객 9,930명)이 입항했으며, APEC이 개최된 지난해에는 29척(관광객 2만 4,852명)이 찾는 등 크루즈선의 입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